

인기와 구설...뜨거워진 '오징어 게임'

화려하고 거대한 세트장
이정재 이미지 변신 성공
휴대전화 번호 유출부터
팝업 세트장 조기 철수 논란도

세계적으로 히트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한편으로는 높은 인기로, 한편에서는 여러 구설로 뜨겁다. 화려하고 거대한 스케일의 세트장과 배우 이정재의 이미지 변신으로 기대를 모은 '오징어 게임'은 예상 이상으로 성공했다. 미국 넷플릭스 인기 순위에서 한국 작품으로서 최초로 1위를 기록한 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와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지

역에서도 선두를 지키고 있다. '데스 게임' 장르 작품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디테일하고도 강렬한 연출과 주·조연 가리지 않는 열연, 몰입감을 보장하는 세트장 등과 더불어 현대 계급사회를 아이들의 게임으로 풀어낸 메시지도 호평 받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다리 건너기,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아이들이 옛날부터 즐겨온 게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정호연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각기 강렬한 개성을 보여준 배우들에 대한 관심도 예사롭지 않다. 하지만 높은 인기만큼 구설도 잇따르고 있다.

먼저 작품 속 등장한 '오징어 게임' 참가용 휴대전화 번호가 실존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번호의 소유자는 오랜 기간 같은 사업을 해온 사람이라 피해가 더 컸고, 제작사 측에서는 보상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전날에는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 설치된 '오징어 게임' 팝업 세트장이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조기 종료됐다. 이태원역 지하 대합실에 마련된 세트장 '오징어 게임'은 당초 26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넷플릭스도 추측 연휴가 끝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일 것을 우려했는지 따로 홍보는 하지 않았지만, 드라마 속 일부 장면을 본떠 게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 온라인에서의 관심이 뜨거웠다. 드라마의 뜨거운 인기에 현장에 사람이 몰리자 결국 서울교통공사와 넷플릭스 측은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 이밖에 계좌번호 유출과 도입부 표절 논란 등 크고 작은 논란들도 지속하고 있다. 신선한 게임과 캐릭터들에 매료된 서구권에서는 대부분 호평하는 것에 비해 이런 '데스 게임' 장르에 익숙한 한국 등 아시아권에서는 호불호가 다소 갈리는 것도 오히려 이슈를 지속하는 데는 도움이 된 분위기다. '오징어 게임'은 앞으로 감독과 배우들의 인터뷰를 통해 화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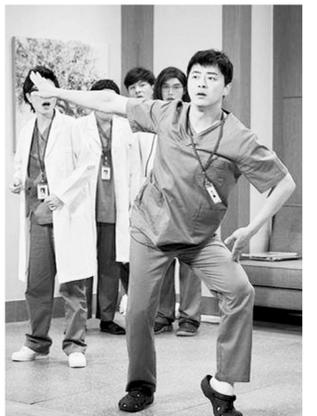
넷플릭스 새 오리지널 예능 '신세계로부터' /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K-오리지널 10편 대방출

내년 2월까지 매월 스트리밍 '신세계로부터' 등 라인업 공개
로지옥', 2022년 1월 '소년심판', '지금 우리 학교는' 2월 '모탈센스' 등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10편을 선보인다. 이날 최초로 공개된 예능 '신세계로부터'는 행사의 진행을 맡았던 그룹 슈퍼주니어의 김희철과 예전의 카이 외에도 이승기, 은지원, 박나래, 조보아 등 6명의 스타가 출연해 가장 세계에서 각종 미션을 수행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풀어낸다. 카이는 "시트콤을 찍는 것처럼 황당한 상황의 연속이었다"고 말했고, 김희철은 "이렇게 비장했던 적이 없었다. 탈출하고 싶었고,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촬영 소감을 전했다. 이외에도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시리즈 '스위트홈', '좋아하면 울리는'의 송강과 'D.P.'의 정해인이 등장하는 팬들을 위한 영상, 한소희 주연의 누아르극 '마이 네임', 11월 20일 '신세계로부터', 12월 '박보아와 티보', '고요의 바다', '솔티지 영상' 등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크루들도 감탄하게 한 조정석

'SNL 코리아' 서 맹활약
못 하는 게 없는 '재간둥이' 조정석은 'SNL 코리아'에서도 맹활약했다. 배우 조정석은 지난 25일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 'SNL 코리아' 4회 호스트로 출연, 다양한 캐릭터로 분해 재치 넘치는 연기를 선보였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불려 음원 차트 1위까지 한 '아로하'를 부르며 쇼를 시작한 조정석은 15년 지기 정성훈과 함께한 '네고의 정식', 'AI 웨이터-알파 조' 등 코너를 소화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권혁수와 여장을 한 뒤 영화 '건축학개론' 속 납득이의 키스 강조 장면을 재연하는가 하면, 아내 거미에게 몰려 '스파이더 조'로 변신한 상황극과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이이준이 돈을 밝히는 의사가 된 에피소드도 능청스럽게 소화했다. 맹활약을 보여준 조정석에 향해 신동엽은 "왜 '조정석 조정석' 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아침 9시부터 14시간을 함께했다. 저희 모든 크루가 조정석 씨한테 매료됐다. 어쩌면 이렇게 천재적이면서도 열심히 할까 생각했다"고 극찬했다. 이에 조정석은 "매주 이렇게 공연하는 여기 계신 크루님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화답했다. 또 신동엽이 "조정석을 볼 수 있게 힘을 써준 15년 지기 정성훈 씨에게 고맙다"고 하자 정성훈은 조정석과 포옹하며 훈훈하게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SNL 코리아' 조정석 / 쿠팡플레이 제공

보이그룹 NCT 127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3위

보이그룹 NCT 127이 새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3위에 올랐다. 26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NCT 127 정규 3집 '스티커' (Sticker)는 이번 주 빌보드 200에서 3위를 차지했다. NCT 127이 이 차트에서 기록한 자체 최고 순위로, 처음으로 '톱3'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가수가 빌보드 200에서 톱3를 기록하는 것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퍼패, 블랙핑크에 이어 이들이 네 번째다. NCT 127은 2018년 정규 1집 'NCT #127 레귤러-이레귤러'가 86위에 오르며 이 차트에 처음 진입했고 이듬해에는 미니 4집 'NCT #127 위아 슈퍼휴먼'이 11위를 기록해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정규 2집 'NCT #127 네오존' (5위)으로 첫 '톱5'를 기록하며 글로벌 K팝 그룹으로 눈도장을 찍었다. /연합뉴스



NCT 127. /SM엔터테인먼트 제공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소개하는 이견희컬렉션

월~목요일 'EBS 클래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인 'EBS 클래스@'는 다음 달 14일까지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이견희컬렉션'을 해설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세기의 기증'으로 불리는 이견희컬렉션은 지난 7월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MMCA 이견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이라는 이름으로 전시 중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예약 관람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EBS는 국립현대미술관과 협



EBS 클래스@. /EBS 제공

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시공간 수 있도록 디지털 미술관을 선보이기로 했다. 의 제약 없이 이견희컬렉션을 만날

방송에서는 전체 기증작 1,488점 중 특별히 이견희컬렉션을 대표할만한 작품 12점과 해당 작가들의 인생 스토리를 고성능 빔프로젝터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윤 관장은 한국인의 얼을 그린 국민화가 이견희의 '황소', 한국 백자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김환기의 '여인들과 향아리', 어두운 시절 담담하게 일상을 그려낸 박수근의 '질구질하는 여인'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라 불리는 나혜석의 '화령전작약', 불꽃 같은 영혼의 화가 천경자의 '노오란 산책길'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월~목요일 밤 11시 55분 EBS 1TV, 오후 10시 20분 EBS 2TV에서 방송하며 홈페이지(classe.ebs.co.kr)에서 다시 보기 할 수 있다. /연합뉴스

48년생 집안에 경사가 있겠다. 60년생 동료와의 갈등이 있겠다. 72년생 사소한 일은 무시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84년생 애꿎은 곁과는 만족스럽겠다.	49년생 조용히 실속만 챙겨라. 61년생 일단 시작만 하면 이룰 수 있겠다. 73년생 실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려라. 85년생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을 만나라.	50년생 행복만 하루를 보낸다. 62년생 웃으면 복이 찾아온다. 74년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86년생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겠다.	51년생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63년생 자꾸만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긴다. 75년생 자신감을 갖고 계획대로 실천하라. 87년생 나를 시기하는 자를 경계하라.
52년생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족의 지지부터 받아라. 64년생 귀인의 도움이 있겠다. 76년생 주관을 갖고 강력히 추진하라. 88년생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	41년생 저 주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53년생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65년생 뜻밖의 사태에도 유연히 대처해야 한다. 77년생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42년생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54년생 과거는 과거일 미래만 생각하라. 66년생 수입이 증가한다. 78년생 경쟁자가 자멸하는 순간을 놓치지 말라.	43년생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55년생 투자를 삼가고 신중히 처신하라. 67년생 명확히 입장을 표명해야 오해가 없다. 79년생 다소 힘든 하루이다.
44년생 자식들이 찾아온다. 56년생 어수선한 분위기에 동요하지 말라. 68년생 모임에 나가면 임원으로 추대 받는다. 80년생 나갔던 목돈이 돌아오는 날이다.	45년생 꿈과 현실은 구별해야 한다. 57년생 벽에도 눈과 귀가 있으니 조심하라. 69년생 남의 것에 욕심을 내지 말라. 81년생 운기가 상승하니 소원 성취한다.	46년생 집안에 경사가 있겠다. 58년생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있겠다. 70년생 배우자와의 다툼은 절대 피하라. 82년생 어려운 일은 순리에 따라 처리하라.	47년생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59년생 일단 가족과 의논을 해야 한다. 71년생 허세를 부리면 이로운 점이 전혀 없다. 83년생 기다리던 소식을 드디어 듣는다.